◑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

전국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1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김광식 치협 보험담당부회장, 현기용 보험이사, 16개 지부 보험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김 부회장과 현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관련,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의약계 단체 중에는 치협이 가장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그동안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과 건강보험수가 조정배경 및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부 보험이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수가 인상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보험해설집이 시급히 필요한 만큼 조속한 발간을 촉구했다.

◑ 전국 초등교에 구강보건계몽 테이프 7천개 배포

치협은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추진됐던 구강보건 계몽용 비디오테이프 7천개를 제작, 완료해 지난 1월 9일 전국초등학교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구강보건계몽용 비디오 제목은 '치카 푸카'이며 40분용으로 전국 초등학교 5천여 곳, 특수학교 1백여 곳, 보건소(보건지소) 1천5백여곳에 각각 1개씩 배포했으며 치협산하 18개 지부에도 4백여개를 발송했다.

서울지부에서 제작했던 계몽용 비디오에 구강보건협회가 만든 계몽용 비디오 내용을 첨가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영수 치협 치무이사는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배포된 만큼 활용도가 높아져 어린이 구강보건증진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로 존중하기 캠페인, 표어·로고 확정

치과계 작종간 서로 존중하는 치과문화형성을 위해 추진중인 '서로존중하기 캠페인'의 표어와 로고가 최종 결정 됐다.

지난 1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4개 단체는 '서로존중하기 캠페인' 3차 회의를 갖고 각 단체의 대표자 1인이 심사를 맡은 가운데 표어 및 로고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표어부문에서는 최임갈씨의 '함께가꾼 치과문화 함께누릴 밝은사회'가 당선됐고 로고는 김홍종씨의 치아 네 개의 형태와 화합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작품이 1위를, 송화승씨의 손과 손을 마주 잡은 모습을 단순화 시켜 동반자의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이 2위를, 최운재씨의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상부상조해야만 하는 4개 단체의 관계를 구강과 치아를 중심으로 만든 작품이 3위를 차지했다. 이날 당선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로고는 각각 50, 30, 20만원의 상금이, 표어에는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당선된 로고 중 1위는 뱃지로 제작이 되어 4개 단체에 6월쯤 배포가 될 예정이다.

◑ 국립치대 독립 법인화 추진실무 소위 첫회의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실무 소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정재규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조영수 치무이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전 회의록을 검토한 후, 국립대치과병원독립법인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토의했다. 정 부회장은 "무엇보다 국립치대독립법인화는 해당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교육부 등이 재정자립 등 경제적인 문제를 들먹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치의학 교육의 문제이기에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성삼 서울치대 병원장이 제출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분립(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치과대학병원 법인설립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는 별도로 서울대학 치과대학병원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위는 법개정이 어렵다면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안에 의하면 치과병원을 서울대학교의 분원 형태로 운영한 후 치과대학병원 법인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